

日本 正倉院의 幡旗와 그 製作國에 대하여

李 春 桂

東國大學校 家政教育科

Buddha Banners in Shoso-in of Japan and their Maker

Choon-gye Lee

Dept. Home Economics Education of Dong-guk University

(1995. 5. 8 접수)

Abstract

After I st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ncient Buddha Banners of Shoso-in and Horyuji of Japan, I searched for the possible countries they could have been made in. I concluded that Japan imported above mentioned Buddha Banners from Korea from the following reasons:

1. Almost no Banners in Heian Period.
2. Difference between Banner patterns of Nara period and them of Heian period.
3. Japan almost always imported Buddhist implements including Banners from Korea from 7th century.
4. Resemblances between kinds and forms of the patterns of Shoso-in and Horyuji Banners, and them of Silla period.

I. 서 론

幡은 산스크리트어(梵語)의 Patake(波多迦)의 漢譯語이며 中國에서 幡이라 명칭하였다. 幡은 佛殿內의 기둥이나 天蓋에 걸거나 堂外의 뜰에 세워 장식하여 佛菩薩을 장엄하게 하는 상징물인 것이다. 「阿舍經」 「維摩經」에는 佛法을 깨닫거나 外敵을 물리치거나 道場의 악마를 항복시켰을 때 幡을 달아 四方에 알렸다고 한다¹⁾. 우리나라는 古新羅 시대에 「幡旗」라 칭하였으며²⁾ 日本

에서는 幡이라 칭하였다. 唐나라의 幡과 古代 韓國과 日本의 幡에 대하여는 이미 언급된 논문이 있으므로³⁾ 본고에서는 日本 正倉院의 幡과 法隆寺의 幡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양 幡旗의 제작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日本 正倉院의 幡旗는 佛幡으로서 染織幡과 金銅幡으로 대별된다. 染織幡의 수는 대단히 많으나 金銅幡의 예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주로 染織幡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1) 石田 茂 監修, 「新版佛敎考古學講座 第5卷 佛具」 1984, 雄山閣出版, p. 26.
2) 「三國遺事」 卷1 眞德王條.

3) 林玲愛, 古代 中國佛敎幡의 樣式變遷考, 「美術史學研究」 189, 1991.
_____, 韓國·日本 古代佛敎幡에 관한 研究, 「美術史學研究」 190, 191 참조 1991.

II. 正倉院의 幡旗와 法隆寺의 幡旗

일반적으로 法隆寺의 幡은 7世紀 後半에서 8世紀 초에 제작되고 正倉院의 幡은 奈良시대 中期에 제작되었으며, 前者는 殘片을 포함하여 수십점이요 後者는 역시 殘片을 포함하여 1000여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그러나 상세히 살펴보면 正倉院 幡이 天平勝寶 년간의 것이라 하더라도 正倉院系에는 法隆寺系의 幡이 混入되어 있어 구별이 확실하지 않은 것이 있다⁵⁾.

한편 法隆寺의 幡은 아쓰카(飛鳥)시대 것 뿐만이 아니라 그후 도꾸가와(徳川)시대에 이르는 각 시대의 각종 寺刹 寶物을 포함하고 또한 法隆寺에도 正倉院 寶物과 同一시기의 것이 존재함으로 兩者의 것을 각각 확연하게 판별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⁶⁾. 이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8세기의 幡을 살피고자 할때도 正倉院의 것과 法隆寺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곤란하며, 대체적인 판별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마쓰모토(松本包未)는 正倉院系의 幡과 法隆寺系 幡의 상이점을 形式上과 素材上으로 정리하였는데 이것을 여기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⁷⁾.

〈正倉院系 幡과 法隆寺 幡의 形式상의 相違點〉

- ① 法隆寺系에는 空頭式이 존재하나 正倉院系에는 없다.
- ② 法隆寺系의 幡頭는 예각적(銳角的)이지만 正倉院系는 正三角形 또는 둔각(鈍角)에 가깝다.
- ③ 法隆寺系는 幡頭緣이 垂手에 연속되는 것이 많지만 正倉院系는 수수를 별도로 만드는 것(別製)이 많다.
- ④ 法隆寺系의 坪은 세로로 긴 것이 많지만 正倉院系는 대체로 正方形에 가깝다.
- ⑤ 法隆寺系는 第1坪을 특히 길게 한 것이 있지만 正倉院系는 各坪이 거의 一定하다.

4) 松本包未, 上代布帛幡の形式について, 紫紅社, 「正倉院寶物にみる佛教儀式具」1990.

5) 앞의 註 참조.

6) 木内武男, 澤田むつ代, “法隆寺の佛幡について”, Museum 348, 1980.

7) 松本包未, “正倉院の染織幡”(後篇), 「正倉院年報」4號, 1982.

⑥ 法隆寺系 幡은 幡身に 二重 切替緣, 二重 坪界의 것이 제법 있지만 正倉院系 幡은 超大形을 제외하고 모두 一重緣, 一重坪界로 하고 있다.

⑦ 法隆寺系는 대체로 幡身緣, 坪系의 폭이 넓고 正倉院系는 반대로 좁다.

⑧ 垂手를 대신하는 金銅圓板은 法隆寺系에만 보인다.

⑨ 法隆寺系는 대체로 坪內를 1張 천으로 하고 있다. 正倉院系는 繼分, 區劃, 裁文장식이 많다.

〈素材面에서 본 法隆寺系 幡과 正倉院系 幡의 相違〉

① 法隆寺系는 綾과 單色純가 대다수이며 錦·蠟縷·縹縷은 극히 소수여서 羅·夾縷은 볼 수 없다. 正倉院은 錦·綾·羅·夾縷(暈縷 포함)·蠟縷·縹縷 등 다채롭다.

② 法隆寺系의 錦·綾은 經錦과 平地綾이지만 正倉院系는 그 밖에 緯錦·浮紋錦·綾地綾 등 다양하며 특히 緯錦과 綾地綾이 많다.

③ 法隆寺系의 錦·綾紋은 幾何學的인 직선 문양과 連珠圓紋이다. 正倉院系는 위의 것 이외에 唐草·唐花·繪畫風 문양이 풍부하여 특히 唐花紋樣이 많다.

또한 마쓰모토(松本)는 正倉院 소장 染織幡 가운데 본래의 것이며 幡의 전체의 形成을 밝힐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다음의 A~U까지 21개形으로 정리하였으며, 正倉院系도 전체의 형식을 추정할 수 없는 것, 法隆寺系의 混入品으로 생각되는 것 및 위의 양자 가운데 어느 것인지 결정할 수 없는 것의 3種의 幡은 綾單襷繼分幡(1점)에서 綠純을 달린 幡緣(6片)까지 34形式에 이른다고 한다⁸⁾.

正倉院 본래의 傳存品이라고 생각되는 諸系統 가운데 자료의 종합적 검토에 의하여 전체의 형상이 밝혀진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綾單襷繼分술달린 四 11점 坪幡(A)

B. 綾單襷繼分술달린 四 11점 坪幡(B)

C. 薄絹單襷繼分술달린 6점 幡

8) 松本包未, “正倉院の染織幡”(前篇, 後篇), 「正倉院年報」3호, 4호, 1981, 1982.

- D. 綾單襖繼分四坪脚술달 1점
린 幡
- E. 綾純袷繼分 四坪幡 1점
- F. 錦袷區劃四坪幡 8점
- G. 綾單襖區劃四坪幡 6점
- H. 錦袷斜繼分四坪幡 殘缺, 殘片 합해서
(聖武一周忌齊式道場幡) 300수십점
- I. 浮文錦袷斜繼分五坪幡 殘缺, 殘片 합해서 약
(上同) 50점
- J. 錦綾袷六坪幡(上同) 殘缺, 殘片 합해서
200수십점
- K. 夾縵純袷五坪幡 3점, 이밖에 각 殘片
20수점
- L. 羅單金銀織莊四坪幡 殘缺, 殘片 합해서
(聖武一周忌齊式道場幡) 200수십점
- M. 夾縵羅袷四坪幡(大佛 24점
開眠式用幡)
- N. 夾縵羅單四坪幡(弁才 4점
天女供養幡)
- O. 錦單四坪幡 1점
- P. 夾縵羅單彩畫三坪幡 3점
- Q. 夾縵羅單三坪幡 21점(殘缺, 殘片 합해
서)
- R. 錦縵三坪幡 1점
- S. 縵縵布單三坪幡 2점
- T. 紫綾單三坪幡 1점
- U. 白綾單三坪幡 2점

어떤 法隆寺幡의 재료는 「秘錦」인데 이 비단은 新羅의 비단 즉「朝霞錦」을 뜻한다⁹⁾. 즉 法隆寺 幡은 大別하여 幡身部緣의 형태에 의하여 二重의 幡身緣의 제 1 형식과, 한결의 幡身緣의 제 2 형식과, 기타의 3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法隆寺 幡의 천을 가장 특징있게 하는 것은 「廣東錦」과 「蜀江錦」이다. 그런데 「廣東錦」의 用語는 「法隆寺 資材帳」등에 이것을 「秘錦」이라 칭하여왔으며, 「蜀江錦小幡」은 幡身 제 1 坪의 雙鳳獅子紋錦, 제 2 坪 이하에 雙綾連珠紋綾, 緣 및 坪의 境界에 赤紅참살(格子)蓮花紋錦이 사용되고 있다¹⁰⁾.

III. 兩幡旗의 製作國에 대하여

幡旗의 제작이 어느나라에서 행해졌는지에 관한 日本學者의 주장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마쓰모토(松本包未)는 法隆寺의 幡이나 正倉院의 幡은 모두 日本에서 제작된 것은 동일하나 前者는 隋나라 기술을 도입하여 제작된 것이고, 後者인 正倉院 幡은 唐나라 기술을 도입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구체적으로는 遣唐 日本使節과 日本 僧侶 그리고 日本에 온 唐 僧들이 가지고 온 知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¹⁾.

그러나 당시 統一新羅·唐·日本과의 외교관계 특히 統一新羅와 奈良 日本과의 정치관계와 불교관계, 唐나라 市場에서 물건도 마음대로 살 수 없었던 唐에 派遣된 日本 大使의 唐에서의 처지, 唐에 파견된 日本僧들의 唐으로의 파견이나 귀국시의 신라배의 도움, 이들의 本國 日本과의 書信 연락이나 本國으로부터 이들에 전해지는 학비의 送金 등도 모두 統一新羅의 지도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사실을¹²⁾ 상기한다면 마쓰모토(松本)의 견해는 근거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1) 日本이 스스로의 知識이나 技術 축적에 의하여 染織幡을 제작하였다면 7世紀 후반 이전이나 8世紀 奈良時代에 인접하는 다음 시대인 平安時代에도 幡이 7세기나 8세기에 못지 않게 많이 出現되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못하다. 실제로 平安시대의 幡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또 7世紀 후반의 幡은 남아 있지 않으나 「日本書紀」에 의하면 그 당시의 것은 모두 古代 韓國(百濟)이 가져간 것들이다.

2) 7세기와 8세기의 幡이 日本에서 제작되었다면 平安시대 이후의 幡의 紋樣도 그 前시대인 法隆寺나 正倉院의 幡의 文樣이 계승되어야 한다. 그러나 平安시대 幡의 文樣은 다양 자유분방(自由奔放)한 文樣이나 狩獵 文樣과 같은 正倉院 幡의 文樣과는 다르다¹³⁾.

3) 日本은 이른바 飛鳥시대부터 奈良시대를 통하여 수백종의 新羅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특히 그러한 물품의 大宗은 佛具들이었다. 이러한 佛具에는 莊嚴具로서

11) 註 4 및 註 7 참조.

12) 崔在錫, 「統一新羅·渤海와 日本의 關係」 一志社, 1993, 제 2 部 제 1 章~제 4 章 참조.

13) 註 4 참조.

9) 東野治之, 「正倉院」, 1988, pp. 131-132.

10) 註 6 참조.

의 幡이 甕당 포함되어 있었을 것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日本書紀」와 「日本古文書」에 의하여 日本이 新羅의 물건을 구입한 事例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⁴⁾.

671년	여러가지 물품	685년	160여종
678년	10여종	687년	100여종
681년	10여종	752년	120여종

한편 新羅에서 日本에 보낸 물품에 대한 記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記錄으로도 日本은 기회 있을 때마다 韓國(百濟 및 新羅)로부터 여러가지 佛具를 공급 받았음을 알 수 있다.

(欽明 13년) 10월 百濟의 聖王이 西部 姬民 達率 怒利斯 致契 등을 파견하여 釋迦佛의 金銅像 1具와 幡蓋若干, 經論 若干卷을 보냈다.

(推古 31년) 7월 新羅가 佛像 1具, 金塔·舍利· 큰 觀頂幡 1具·小幡 12條를 보냈다.

681(天武 10년) 10월 20일 新羅가 沙喙 一吉滄 金忠平, 大奈府, 金一世를 파견하였다. 金·銀·鐵·錦·絹·鹿皮·細布類 상당수, 별도 天皇·王后·太子의 冑으로 金·銀·霞·錦·幡·皮物 등 상당수 구입하였다.

도오노(東野治之) 교수는 일부만 남아 있는 古文書에 의하여 752년 日本은 87종 이상의 新羅물품을 日本에 간 新羅使節로부터 구입하였으며, 미나가와(皆川完一) 교수는 新品目 35점을 동일 신라 사절로부터 구입한 것을 밝히고 있다¹⁵⁾.

4) 幡의 재료는 주로 染織物이다. 그런데 8세기의 日本은 染織物을 제조할 수 없었다. 즉 다음과 같은 여러 시각에서 조사하여도 당시 日本은 染織物을 제작할 수 없었으며 단지 絲·絹·緇 등의 섬유와 원료나 一次的의 제품 정도 밖에는 제작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¹⁶⁾.

- ㉑ 日本이 中國에 稅制로 조공한 직물의 내용
- ㉒ 日本이 규정한 中國 皇帝에의 진상품 규정
- ㉓ 日本이 統一新羅에 進上한 직물의 내용
- ㉔ 日本이 渤海에 進上한 직물의 내용
- ㉕ 752년 日本이 新羅의 물품을 구매할 때 지불한 日

본의 織物 내용

㉑ 日本이 貫族과 官人에게 祿으로 지불한 직물의 내용

㉒ 日本의 農民이 세금으로 바친 직물의 내용

5) 正倉院 幡의 문양과 平安시대 이후 幡의 문양이 相異한 것과는 달리 正倉院 幡의 문양의 종류는 統一新羅에 흔히 사용하는 문양의 종류와¹⁷⁾ 일치한다. 여기에 대하여는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正倉院의 幡의 종류가 A~U까지 21종이나 된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21종의 幡에 사용된 직물 조직의 문양이 어떠한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⁸⁾.

- A. 雙龍圓紋 (幡身)¹⁹⁾ 葡萄唐草紋 (幡身)
- B. 花·唐草·鳥紋 (幡身) 8稜唐花紋 (幡脚)
- 飛仙紋 (幡身) 葡萄唐草紋 (幡脚)
- 雲唐草·獅子紋 (幡身) 花枝·唐草紋 (幡脚)
- 작은 마름모(小菱)紋 (幡脚)
- 蓮唐草紋 (幡脚)
- 小唐花紋 (幡脚)
- C. 唐花系 (幡身)
- D. 작은 마름모문 (幡身) 꽃마름모(花菱)문
- 雙鳥唐花紋 (同) (幡身)
- E. 작은 마름모문 (同) 葡萄唐草紋 (幡身)
- 小唐花紋 (同)
- F. 鳳凰形 (幡頭) 唐草花鳥紋 (幡身)
- 小唐花紋 (幡身)
- H. 작은 마름모문 (幡頭) 龜甲花紋 (幡身)
- 小花唐草紋 (幡頭) 花鳥獸紋 (幡身)
- 花唐草鳥紋 (幡頭) 雙鳥唐花紋 (幡脚)
- 唐花獅子紋 (幡身) 雲大鳥紋 (幡脚)
- 山羊紋 (幡身) 葡萄唐草紋 (幡脚)
- 花卉雙羊紋 (幡身)
- I. 花鳥紋 (幡身)
- J. 麒麟唐花紋 (幡頭) 葡萄唐草紋 (幡身)
- 唐花紋 (上同) 花·唐草紋 (幡身)
- 원앙唐草紋 (上同) 小唐花紋 (幡身)
- 雙龍圓紋 (幡身) 八角唐花紋 (幡身)

14) 崔在錫, 「日本 正倉院 소장품과 統一新羅」, 一志社, 1995, (近刊).
 15) 東野治之,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1989, 塙書房.
 16) 皆川完一, 買新羅物解拾遺, 「正倉院文書研究」 2, 1994.

17) 統一新羅 시대의 문양에 대하여는 崔在錫, 「日本 正倉院 소장품과 統一新羅」 一志社, 1995, (近刊).
 18) 註 8의 논문(前篇)에서 정리한 것이다.
 19) 팔호 속은 문양이 나타난 幡의 위치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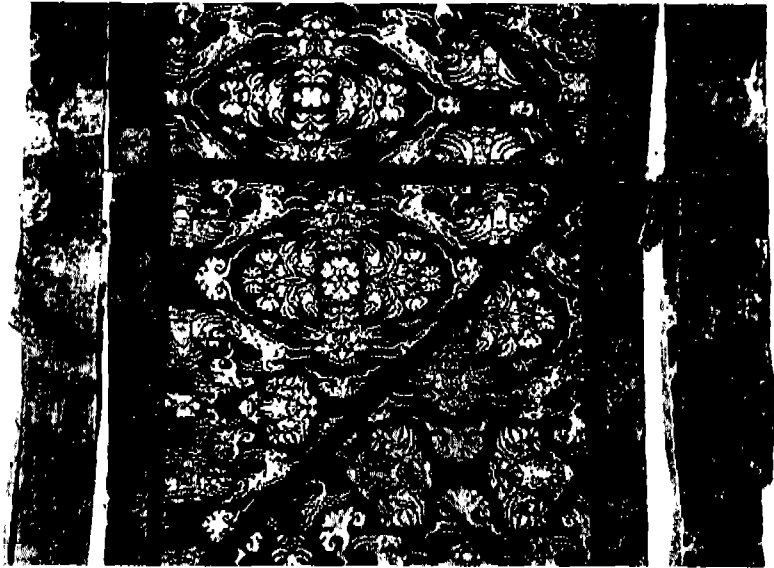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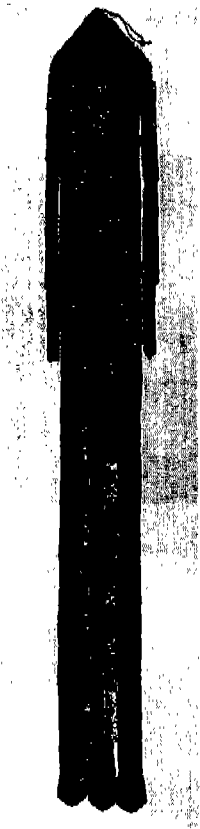


그림 1의 확대

[그림 1] 錦幡(1985년 正倉院展 #35)

- 雲鳥紋 (上同) 雲唐草獅子紋 (幡身)
- 飛仙紋 (上同)
- K. 花飛鳥紋 (幡身) 마름모문(四菱) (幡身)
- 龜甲紋 (幡身)
- L. 龜甲花紋 (幡身) 원앙문 (幡身)
- 花鳥獸紋 (幡身)
- M. 唐花紋 (幡頭) 雙鳥唐花紋 (幡頭)
- 麒麟唐花紋 (幡頭) 葡萄唐花紋 (幡頭)
- 사슴당화문 (幡頭) 雲唐草唐花紋 (幡頭)
- N. 문양이 안보임
- O. 당초사자문 (幡身) 花草紋 (幡身)
- P. 花鳥紋 (幡頭) 唐草紋 (幡身)
- Q. 唐草紋 (幡頭) 麒麟唐草紋 (幡頭)
- R. 가슴唐草문 (幡頭) 唐花紋 (幡身)
- 원앙唐草紋 (幡頭) 麒麟唐花紋 (幡身)
- S. 보이지않음
- T. 唐花紋 (幡頭) 花唐草鳥紋 (幡身)
- 花枝唐花紋 (幡身)

U. 葡萄唐草紋 (幡身)

위의 幡의 재료인 染織物의 조직 문양을 살펴 보면 마름모·구감 등 幾何學的의 문양, 花·花卉문양, 쌍봉·쌍조·쌍용·사자·飛仙(飛天)·수렴·기린·사슴·원앙 등의 禽獸문양 등으로 大別되는데 이러한 문양의 종류와 형태는 新羅의 것과 일치한다²⁰⁾. 또 法隆寺의 幡의 재료인 염직물(염직물)의 조직 문양은 몇가지의 幾何學的의 문양을 제외하고는 正倉院의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²¹⁾.

결국 法隆寺·正倉院의 幡에 사용된 염직물의 문양은 統一新羅 기와의 각종 문양과 일치함을 알게 된다.

6) 正倉院에서 公表한 幡旗는 얼마 되지 않으며 그

20) 註 14 참조.
 京都帝國大學, 「新羅古瓦研究」, 京都帝國大學文學部, 1934.
 金東賢 외, 「新羅의 기와」 東山文化社, 1975.

21) 澤田むつ代, “法隆寺幡に使われている「綾」”, Museum 389, 1983.

가운데서 完形이 보존된 것, 문양이 뚜렷한 번기는 더욱 줄어들었다. 문양이 뚜렷한 몇가지 幡旗의 문양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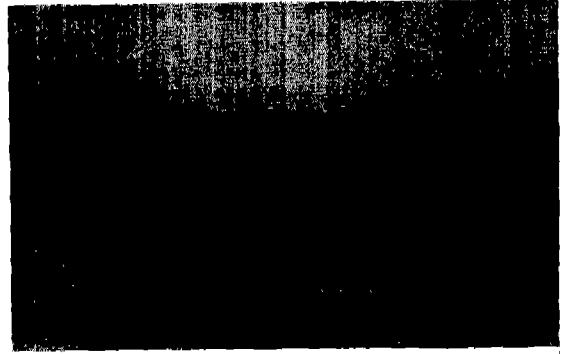
幡旗(그림 1)에는 飛雲, 마주보는 雙鳥, 雙羊의 문양이 보인다. 여러가지 형태의 飛雲, 마주보는 雙鳥 모두 新羅의 기와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양이다²²⁾.

花鳥紋夾結縵大幡殘缺에는 몸은 마주향하되 머리는 서로 뒤로 돌리고 있는 雙鳥紋이 있는데(그림 2) 이것은 新羅기와의 문양 제136(그림 3)과 유사하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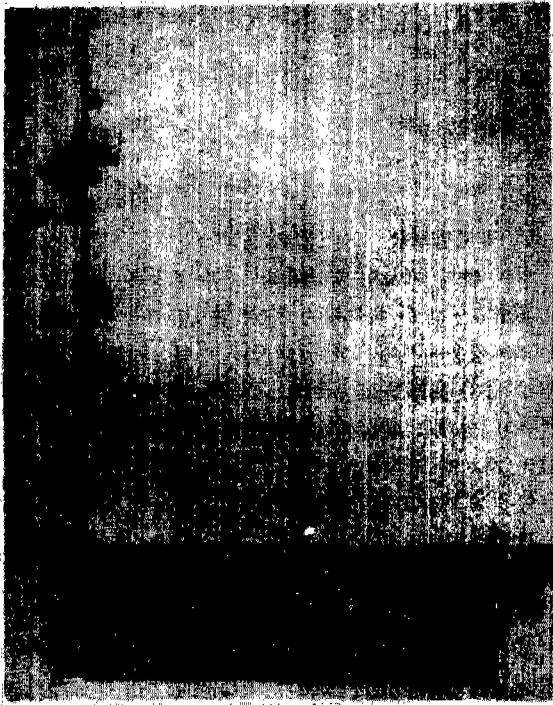
蜀江錦幡은(그림 4, 5) 連珠圓紋과 마주보는 雙鳥紋이 있고 또 작은 連珠圓紋속에 寶相華를 그린 문양이 여러개 있다. 連珠圓紋과 마주보는 쌍조문은 신라기와의 자주등장하는 문양과²⁴⁾ 동일하고 寶相華紋은 호암미술관 소장의 雙鈿花禽獸紋鏡의 寶相華紋과 일치한다.

幡垂 幡飾의 큰 花紋(그림 6)은 新羅기와의문양 제 438

(그림 7)과 유사하다. 正倉院의 幡은 染織幡 뿐만 아니라 金銅幡에도 각종 문양이 있는데 그 문양은 染織幡의 것과 동일하다. 그림 8의 문양은 마주보고 있는 쌍조의



[그림 3] 新羅기와의문양 #16



[그림 2] 花鳥文夾結縵大幡殘缺(1982년 正倉院展 #18)



[그림 4] 蜀江錦幡(松本包末, 「正倉院裂과 飛鳥天平의 染織」1984 #123)

22) 註 20 참조.

23) 金東賢 의, 「新羅의 기와」 東山文化社, 1975.

24) 註 20 참조.

25) 註 20의 책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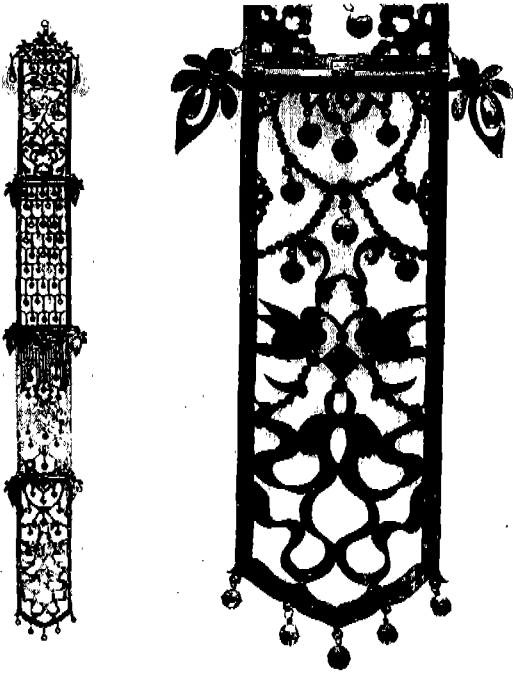
[그림 5] 錦道場幟(그림 4의 확대)



[그림 6] 幟垂端飾(1986년 정창원전 #41)



[그림 7] 新羅기와 문양 #438



[그림 8] 金銅幡(1991년 正倉院展 #18)

문양으로 新羅古瓦研究의²⁵⁾ 문양 제222와 동일하다.

IV. 맺는말

앞에서 日本 正倉院의 幡과 法隆寺의 幡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 그 幡이 어느나라에서 제작되었는가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① 平安시대의 幡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奈良시대의 幡의 문양과 平安시대 이후의 幡의 무양이 다른 점, ③ 日本이 飛鳥시대 부터 계속해서 佛具를 위시한 각종 물품을 新羅로부터 구입한 점, ④ 正倉院 幡과 法隆寺幡의 문양의 종류와 統一新羅 시대의 문양의 종류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문양의 형태가 유사 내지 동일한 점 ⑤ 法隆寺 幡의 소재가 新羅의 錦朝 朝霞錦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正倉院 幡은 統一新羅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670년 法隆寺 燒失時 幡도 함께 불에 탔다고 한다면 百濟에서 가져온 幡은 모두 燒失되었을 것이고, 이는 곧 法隆寺 幡도 正倉院 幡처럼 統一新羅(668~918)시대의 幡이 남아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金東賢 외, 「新羅이 기와」 東山文化社, 1975.
 林玲愛, “古代 中國佛敎幡의 樣式變遷考”, 「美術史學研究」 189, 1991.
 _____, “韓國·日本 古代佛敎幡에 관한 研究”, 「美術史學研究」 190, 191, 1991.
 崔在錫, 「統一新羅·渤海와 日本의 關係」 一志社, 1993.
 _____, 新羅와 日本의 關係와 日本이 新羅로부터 구입한 물품, 1995.
 _____, 「日本 正倉院 소장품과 統一新羅」 一志社, 1995 (근간).
 「三國遺事」 卷1 眞德王條.
 石田茂作, 「新版佛敎考古學講座 第5卷 佛具」 雄山閣出版, 1984.
 松本包未, “上代布帛幡の形式について”, 「正倉院寶物にみる佛敎儀式具」, 紫紅社, 1990.
 _____, “正倉院의 染織幡”(前篇), 「正倉院年報」 3號, 1981.
 _____, “正倉院 染織幡”(後篇), 「正倉院年報」 4號, 1982.
 _____, 「正倉院裂と飛鳥天平の染織」 紫紅社, 1984.
 木內武男, 澤田むつ代, “法隆寺の佛幡について”, Museum 348, 1980.
 東野治之,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塙書房, 1989.
 東野治之, 「正倉院」, 1988.
 皆川完一, 買新羅物解拾遺, 「正倉院文書研究」 2, 1994.
 京都帝國大學, 「新羅古瓦の研究」 京都帝國大學文學部, 1934.
 東京國立博物館, 1981년, 特別展「正倉院寶物」.
 奈良博物館, 1982년 「正倉院展」.
 奈良博物館, 1985년 「正倉院展」.
 奈良博物館, 1986년 「正倉院展」.
 奈良博物館, 1991년 「正倉院展」.